

# 민주 “정권교체 민의 단단해질 것” 단일대오 전열 정비

### “유일한 대안은 이재명” 1심 판결 후 방어 총력전 尹대통령 골프 의혹 등 부각...주말에도 장외집회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에 대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 정의를 크게 훼손한 이번 정치 판결에 동조할 국민은 없다”며 “이 대표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은 누가 봐도 명백한 사법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김민석 최고위원도 회의에서 “떨어진 대선후보에 대한 징역형을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나”라며 “오판의 충격보다 더 큰 정권교체의 민의가 단단해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명(바이재명)계의 김동연 경기지사-김부겸 전 국무총리-김경수 전 전남지사가 움직일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이 같은 움직임은 아직 힘을 받지 못하는 분위기다.

박수현 의원의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 나와 “지금의 유일한 선택이자 유일한 대안은 이재명”이라며 “1심의 억울한 판결 이후 그런 기록은 더 강해지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오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이 재외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28일로 예상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둔 상황에서 분열이아발로 당의 더 큰 위기라는 인식이 일었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도리어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의혹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더욱 키울 수도 있다는 판단이다.

이를 반영하듯 민주당은 내부 전열을 다지는 한편, 윤 대통령 부부의 의혹을 집중적으로 언급하며 이를 공세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연주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의 ‘골프 연습’ 의혹을 다시금 제기했다.

이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다음날, 부천 호텔 화재 사고 추모 기간 등 날짜를 가리지 않고 골프 연습을 했다”며 “민생, 국정 현안을 내팽개치고 골프 삼매경에 빠진 것을 어떻게 이해하나”라고 반문했다.

당내 ‘명태군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이 대선 기간 불법 선거사무소를 운영한 장소로 지목된 서울 강남의 한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진상조사단은 오후에는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곳을 방문한 결과를 공유하고, 명태군 씨가 창원국가산단 후보지 선정 과정에 개입한 의혹에 대한 대응 등도 논의한다.

김두관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통령 임기 단축과 개헌 추진을 위한 1인 피켓 시위를 하며 당의 공세에 동참한다.

민주당은 23일에도 장외 집회를 계획 중이다.

특히 시민단체와 함께 집회를 개최해 김 여사의 각종 의혹을 규명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수용을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회동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오른쪽)가 18일 국회의장실에서 우원식 의장과 만나 회동에 앞서 인사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국힘 “소상공인 지원·육아기 재택근무 장려금 확대”

### 34개 민생사업 예산 증액 추진

국민의힘은 18일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민생 중심·미래 중심·약자 보호 강화’를 신사의 3대 축으로 삼고, 7개 분야 주요 34개 민생사업의 예산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 구자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예산안 심사 방향’을 발표했다.

김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회 예산안 예비 심사에서 검찰·경찰 등의 특수활동비를 삭감한 것을 ‘보복성 삭감’으로 비판하고, “일방통행식 ‘묻지마 삭감’ 예산은 인정될 수 없고 정부안대로 되돌려 놓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도 당론으로 추진한 개 식용 종식과 관련된 육건예계 지원금을 정지적 예산으로 호

도하는 등 프레임 뒤섞우기로 국민을 선동하는 예산삭감 주장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과 일자리 확대를 위해 블랙프라이데이 행사와 연계한 중소기업 판매대전을 열고, 특별구매 환급행사를 도입해 중소기업 판로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명절기간 은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해 전통시장·소상공인 매출 신장에 기여하고, 중도 포기·은퇴 선수가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국가지원을 신설할 방침이다.

미래 먹거리인 AI 분야 투자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등 첨단전략사업 특화단지 기반 시설 지원을 늘리는 한편 첨단사업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분야 투자도 강화한다.

출산 후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재택근무를 선택하면 장려금을 대폭 확대해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3자녀 이상 가구는 승합차 등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고 아이 돌봄서비스 이용 시 자부담을 추가 경감하기로 했다.

지역에는 노후 SOC 시설 등을 개·보수해 안전성을 강화하고 지하차도 침수 예방 진입 차단시설 설치, 보행자 가드레일 보강 예산을 대폭 증액해 국민 생명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재정적으로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 부담을 고려해 중앙정부가 지방채를 장기저리로 인수하는 예산도 보강한다.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투자 리딩방·피싱 등 악성 사기, 마약, 사이버 도박 등 4대 민생침해 범죄 적결 사업 예산도 증액할 계획이다.

국립대 의대와 함께 사립대 의대의 지역·필수의료 관련 인력 및 시설 확충 지원을 신설하고, 지방필수의료 연계 체계 마련을 위한 대학병원 및 대학병원과의 협업형 지방 필수의료체계를 수립하는 예산도 지원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 예결위, 677조 내년 예산안 심의 돌입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8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열고 67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돌입했다.

예결위 예산소위는 국회 예산심사의 ‘최종 관문’으로, 세부 심의를 통해 사업별 예산의 감액·증

액을 결정한다.

예산소위에서는 야당이 상임위 과정에서 삭감한 권력·사정기관 특수활동비와 정부 예비비를 비롯해 민주당이 증액을 요구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등 쟁점 예산을 놓고 여야가 본격적인 힘겨루

기를 펼칠 전망이다.

예산소위는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6명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소위 위원장은 예결위원장인 민주당 박정 의원인 맡았다.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시한은 다음 달 2일이지만, 여야 대치 정국에 영향을 받으면서 처리 시한을 넘길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여의도 브리핑

## 문금주 “불법 수산물 온라인 유통 처벌 강화”

더불어민주당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이 18일 불법 수산물 온라인 유통 근절을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10월 실시된 제22대 첫 국정감사에서 문금주 의원은 해양수산부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불법 수산물이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실태를 적발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이어갔다.

해수부는 TF를 구성해 불법 수산물 온라인 유통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주요 온라인 쇼핑 업체를 소집해 불법 수산물 유통 근절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간 상태다.

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불법 수산물 온라인 유통 근절을 위한 업무의 연장 선상에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통신판매중개자를 포함해 불법 수산물을 판매 중



개 및 구매대행을 금지시키고 적발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2년 이내에 2회 이상 불법 수산물 판매 중개 또는 구매대행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위반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문 의원은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 조성과 어민의 안정적 소득을 위해 불법 수산물 유통 근절을 위한 내용들을 기획했다”며 “이번에 발의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MD MODERN 모던건설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창 광주시 서구 서창2길3(서창동)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